"신종플루 감염 무서워" 해외연수 줄줄이 취소

여름휴가 해외여행 취소도 잇따라 여행사 '울상'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연수 등을 계획했던 광주지역 각급 학교들이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감염을 우려해 연수 자체를 취소하거나 국내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예약했던 일반 여행객들의 취소사태가 이어지면서 여행업계가 울상이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올 초·중등교원 여름방학 해외연수를 국내 연수로 전환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테마별 12개 팀 360명이 참가한다.

매년 '교원 테마 체험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교원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문화와 역사, 유적지 체험, 교육기관 탐방 등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내 경제 불황과 맞물려 신종플루까지 확대되는 추세여서 해외 연수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각 학교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유럽 체험 연수를 계획해 왔던 광주 A고교는 최근 신종플루 등을 이유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광주 B고교도 1학년 학생 전원이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체험학습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로 무기한 연기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했던 일반인들의 여행 취소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여행 전문업체인 삼호관광의 강성 사장은 "최근들어 해외여행 예약자들이 취소 여부 등을 자주 묻고 있다"면서 "해외여행 상담 전화도 신종플루 안전 국가를 묻는 경우가 많고, 예약도 전년보다 5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에 신종플루 첫 환자

자원봉사 여대생

광주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간 나주시 동강면 한 교회에 자원봉사를 다녀온 여대생 강모씨가 지난 7일부터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 9일부터 추정환자로 분류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강씨가 신종플루 확진 환자라는 최종 판명을 받았다.

시는 강씨가 미국 교포 대학생 9명이 자원봉사를 같이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접촉자와 숙식을 함께 한 6명의 소재를 파악해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했다. 강씨는 현재 국립 목포병원 격리 병상에서 치료중이며, 상태가 양호해 15일 퇴원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고발 철회하라"

민주당 시국선언교사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소속 의원들이 14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여금 편법 지급' 화순군수 등 고발

화순군정지기단

화순지역 시민사회단체인 화순군정지기단이 화순군의 성과상여금 편법지급 의혹과 관련, 군수 등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순군정지기단은 14일 "화순군의 '성과상여급 23억여원 편법지급 의혹'과 관련해 화순군수와 부군수, 해당 과장 등을 공금 횡령·유용 및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정지기단은 "화순군은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기고 상여금 28억원을 지급했다"며 "군의 '성과상여금 계급간 등급현황' 자료는 허위공문서로 밝혀졌고 심사위원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화순군 측은 "'중앙 총액 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 수당인 시간외수당과 연가 보상비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했고 심사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연쇄살인 피의자 박모(38)씨가 14일 광주시 북구 H교회 앞에서 여의사 살해 과정을 재연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모자·마스크 벗겨라"

여신도 연쇄살인 현장 검증 주민들 분통

피살 여의사 동생, 범행 과정 추적 '눈길'

교회와 여성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품고 여신도 2명을 살해한 30대 연쇄살인범은 14일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도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광주광산경찰은 14일 광주시 북구 H교회와 광산구 W성당 등에서 여신도 연쇄살해 피의자 박모(38)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흉기를 구입한 과정을 재연한 박씨는 10시께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여의사가 피살당한 북구 H교회에 나타났다.

박씨는 H교회와 10m 가량 떨어진 4거리에 세워 둔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잠시 내려 범행 당일처럼 주변을 서성인 뒤 차를 교회 앞으로 이동시킨 모습을 재연했다. 이어 교회에서 홀로 빠져나오는 여의사 안모(44)씨를 뒤따라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서는 여의사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뒤 넘어뜨려 잔혹하게 살해하는 과정을 재연했다.

범행을 재연하는 박씨를 향해 "저런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느냐. 당장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라"등의 항의가 주민들 틈에서 잇따르자 박씨는 연방 모자창을 끄집어 내렸다.

주민들 틈에 있던 여의사의 여동생 안모 교수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로 박씨가 범행을 재연하는 장면을 쉼없이 찍어댔다. 안 교수는 지난 9일 광산경찰서에서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도 참석하는 등 이 사건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W성당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이 "죄책감을 느낍니까","희생자 유족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등의 질문을 쏟아내도, 마스크와 모자 사이로 바닥만 바라볼 뿐 박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광산구 W성당에서도 박씨는 담담한 태도로 여신도 염모(48)씨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 과정을 재연해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한 40대 남성은 "저런 연쇄살인범은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사형시켜야 한다"며 치를 떨었다.

이어 박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남구 대촌 저수지 등에 버리는 모습을 재연한 뒤 나주시 산포면 자신의 고향 집으로 이동, 세탁기에 옷을 넣고 태연히 범행을 은폐하려던 장면을 되풀이했다. /김형호기자 khh@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

특별법 개정안 의결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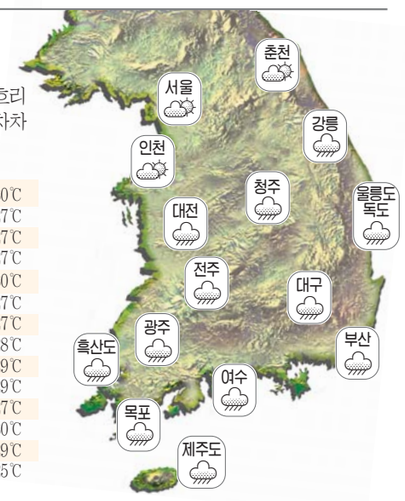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9분 해짐 19시 47분 / 달뜸 23시 43분 달짐 12시 40분

장대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온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2/30℃
목 포	흐리고 비	22/27℃
여 수	흐리고 비	24/27℃
완 도	흐리고 비	24/27℃
구 례	흐리고 비	23/30℃
해 남	흐리고 비	24/27℃
장 흥	흐리고 비	24/27℃
고 흥	흐리고 비	24/28℃
순 천	흐리고 비	23/29℃
영 광	흐리고 비	22/29℃
진 도	흐리고 비	24/27℃
전 주	흐리고 비	22/30℃
남 원	흐리고 비	22/29℃
흑산도	흐리고 비	21/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4.0m
먼바다	남서~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4.0m
먼바다	남서~서	2.0~4.0m

자외선지수 보통 / 식중독지수 경고 / 불쾌지수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06:53 19:35	12:18 --:--
여수	01:16 14:21	07:50 20:0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날 씨						
최저/최고	22/30	23/30	23/29	23/31	23/31	23/29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광주기독병원

항생제 사용 절제 가장 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이 수술 전후 항생제 사용 실태가 가장 우수(1등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광주·전남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7곳 등 총 304곳의 지난 해 8~10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항생제 사용실태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44곳이 가장 우수한 1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의료기관의 1등급 비율과 광주·전남지역의 1등급 비율은 각각 14.4%, 14.8%로 비슷했다.

심평원은 위수술과 심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등 8개 수술의 항생제 사용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절개 1시간전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 2종 이상 투여율 ▲퇴원 때 항생제 처방률 등을 개별 및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수술 전후 항생제 사용 실태(종합) 평가 결과, ▲2등급은 광주 동아병원과 전남의 나주한국병원·여수애양병원·순천하나병원·여수전남병원 ▲3등급은 광주보훈병원과 목포중앙병원·목포한사랑병원·순천성가롤로병원·여천전남병원 ▲4등급은 광주의일곡병원·광주희망병원·미래로21병원·시엘병원·에덴병원·은병원과 전남의 미나의료재단여수문화병원·목포그린병원·목포미즈아이병원·제일병원·해남병원·전남중앙병원·현대병원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